

# 홈네트워크 쉽게 만들 수 있는

## LG넷하드 NT1



LG전자가 8월 초에 출시한 넷하드 NT1(모델명: NT1DDI)은 그야말로 실속형 네트워크 저장장치(NAS; Network Attached Storage)다. 가격이 100만~200만 원대의 고가인 기존 NAS들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30만 원대 초반으로 이제 개인 소비자들도 손쉽게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인터넷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NAS와 상대되는 개념은 직접 저장장치(DAS; Direct Attached Storage)로 일반적으로 외장하드를 가리킨다. DAS는 운영체제(OS)가 없고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지만 NAS는 자체 OS와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게 장점이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자료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넷하드 NT1은 사진파일 1만7천여 장, MP3 음악파일 25만 개, HD급 영화 130여 편 분량에 해당하는 1테라바이트(TB)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자랑한다. 또 자체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ODD; Optical Disc Drive)를 내장해 중요한 데이터는 DVD에 2차로 기록, 저장할 수 있다.

하드디스크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배드 섹터(Bad Sector, 하드디스크 손상 부분)가 생길 수 있다. NT1은 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배드 섹터 자동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2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

NAS는 거의 24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용 환경을 반영해 NT1은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히 조용한 저소음(25dB 이하) 기술을 적용했으며 최소 전력 소비를 위한 설계로 '에너지스타 5' 인증을 받았다. 제품의 크기는

3.5인치 외장하드와 비슷하다. 다만 ODD기능이 포함돼 있어 약 1.5배 정도 두껍다.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 PC나 TV 옆에 놓아도 잘 어울린다.

국내외에서 즐겨 이용하는 P2P(person-to-person) 프로그램 '토렌트(Torrent)'가 기본으로 내장돼 있어 PC를 연결하지 않아도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

다. 스마트폰의 '아이튠스(iTunes)'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넷하드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감상할 수 있다.

### 홈네트워크 구축도 한방에!

가정에서 특히 유용한 기능도 있다.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는 넷하드 NT1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사진, 음악 등을 TV와 PC, 블루레이 플레이어, 스마트폰 등 DLNA를 지원하는 다른 멀티미디어 기기와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기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PC에서 보던 영화를 TV의 큰 화면으로 이어서 시청하다 외출하게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도 볼 수 있다. 단, DLNA 기능이 없는 구형 기기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NT1에 접속하는 방법도 간편하다. LG전자에서 기본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제공하므로 원하는 도메인 이름과 패스워드만 설정하면 외부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정한 도메인 이름이 Midas라면 'Midas.lgnas.com'으로 들어가 로그인한다. 용량이 큰 파일을 다운받을 때에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다. 이런 경



NT1은 영화, 음악, 사진 등 디지털 파일 용량이 급증하는 최근 소비자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진제공\_ LG전자

우에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하면 더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다.

NT1은 애플의 맥(MAC) OS와의 공유도 지원한다. 윈도 OS를 쓰는 PC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유 환경이 열악했던 맥 유저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또 맥 노트북인 맥 북프로의 백업 기능인 '타임머신'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상시적인 데이터 백업이 가능하다.

### 아직은 불친절한 NAS 설정

여러 편리한 기능과 넉넉한 용량으로 무장한 NT1이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NAS의 특성상 인터넷 공유기를 항상 함께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IT) 기기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공유기를 포함한 네트워크 설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설명서가 너무 간략해서 아마추어가 보고 따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

근 LG넷하드 홈페이지(<http://www.lgnethard.com>)에서 설치를 돕는 동영상 안내와 공유기 설정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리는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LG전자 이태권 홈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팀장은 "NT1은 영화, 음악, 사진 등 디지털 파일 용량이 급증하는 최근 소비자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LG 넷하드가 데이터의 효율적 저장, 공유를 위한 차세대 저장장치로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출시한 고급형 NS2와 중급형 NC1도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라인업을 추가해 시장 공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